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



고위공직자범죄신고
02-6320-0200



이낙연, 11일 국회서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 선언



민주묘지서 발언하는 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그간 당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제 갈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탈당 방침을 굳혔다.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불의의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한동안 말을 아꼈던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송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8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는 1월 11일(목)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태영그룹 “890억원 태영건설에 투입...직접 지원 약속 이행”

“나머지 자구계획도 조속 실행...추가 자구안도 곧 마련”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채권단이 ‘미이행’했다고 판단한 890억원을 추가로 태영건설에 투입했다고 8일 밝혔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이날 논란이 된 890억원의 입금 사실을 공식화하고 “이로써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티와이홀딩스 지분 1천133억원과 윤석민 회장 지분 416억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약속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는 이와 함께 계열사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사이로 담보제공 등을 통해 태영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나머지 자구계획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티와이홀딩스는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도 이른 시일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는 이 같은 자구계획 이행 상황 및 추가 계획을 밝히면서 채권단에 “태영건설이 무사히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티와이홀딩스는 또 이날 공시를 통해 계열사와 사주 일가로 부터 총 430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블루원으로부터 100억원을 1년 기한으로 단기 차입하고,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 117만2천주를 내년 7월 8일까지 담보로 제공하고 330억원을 빌렸다. 이자율은 연 4.6%다. 블루원은 그룹의 레저·관광 계열사로,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디아니스CC와 경기도 용인CC, 경북 상주 골프리조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태영건설에 투입한 890억원 중 430억원을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 노승만 기자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여야 떠나 모든 국민 납득하게 수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윤 청장은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혜식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다 공개가 돼왔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계획범죄이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대표가 1cm 열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적힌 상황 보고와 단독 소행이라는 내용 등이 사건 초기에 전파된 것을 두고 “자작극 등 여러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고 수사 방향성을 놓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윤 청장은 “부상 정도는 전문가인 소방을 통해 확인한 것이며 경찰만이 아닌 각종 정부 기관에서 들어온 보고가 종합된 내용이 전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

“범행동기와 공범·여죄 유무 계속 수사...당적은 공개 불가”

피의자 ‘남기는 말’ 공개여부 검토...주요 인사 근접보호팀 조기배치

밝혔다.

윤 청장은 “사건과 관련해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및 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이고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9일 열 계획”이라며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고 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다 공개가 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윤 청장은 다만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면서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정치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를 국민이 알도록 ‘남기는 말’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주장에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

책을 수립,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2단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용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보호팀을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시 최대한 조기 배치, 3단계는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 검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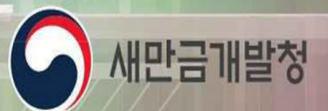
윤 청장은 “현재 경호규칙에 명시된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배영성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 투자유치 달성!

이차전지 기업들이 모이는 새만금!



與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당 지지도 하락, 용산 책임 많아”

‘이준석 신당’ 합류 선 긋기...“정치적 고향 바꾸지 않아”

국민의힘 김웅(조선·서울 송파갑) 의원은 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내 답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는 ‘진윤(진윤석열) 핵심’으로 꼽힌 장재원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후보만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김웅 의원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 합류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버릴 수 없고, 바꾸는 일은 없다. 정치를 안 하면 안 하지”라고 선을 그었다.

탈당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당이 더 우경화되면 남아있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보다 우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당에서 맡겨준 공약 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면서 “당정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끌기 매우 어렵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정책과 ‘진윤(진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당내 비주류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에 마음이 아프다”며 “이 나라를 위해 이 사람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송유영기자



국가정보원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북, 하마스에 무기공급”

‘한글표기 부품’ 사진공개

국가정보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마스가 북한이 생산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 지난 5일 보도하면서, 한글 표기가 식별되는, F-7 로켓유탄발사기(RPG)의 신관(포탄 기폭장치) 부품 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국정원은 이날 VOA의 보도를 확인하며서 한글 표식이 있는 신관 사진 1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정원은 VOA의 보도 사진에 대해 “한글 표식 신관은 F-7 로켓의 중간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사진의 해당 부품 부위를 원으로 표시해 언론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출처 보호 및 외교관계를 고려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는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발표는 그동안 한미 당국이 긴밀한 공조 하에 지속해서 추적해온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러·북 간 탄도미사일 및 포탄 등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남희철 기자

野 “이재명 피습’ 수사정보 유출 유감...피의자 당적 밝혀야”

당 정치테러대책위 첫 회의...‘당적 비공개’ 경찰엔 “선뜻 이해안돼”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1차회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정보 유출 중단 및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모 가능성을 밝히는 게 이번 테러 사건 본질을 규명하는 것으로,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과 수사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정보들이 무작위로 유출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가령 수사의 핵심인 테러범의 범행동기와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한 매체에 피의자를 태워 준 외제 차량 관련 기사가 나가

자마자 경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였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다”며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수사 상황 유출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명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 정치 테러 피의자에 대해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거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이번엔 절대 선처 없다는 각오로 유포 과정과 왜 유포됐는지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백주 대낮에 위협한 흉포한 테러 행위에 철저하고 의혹 없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초기 당국의 선부른 경성 및 단독 범행 주장, 범인의 당적 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수사 정보 유출이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 왜곡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만든다는 사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박현욱 기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7월 150원 인상 검토...‘관계기관 협의’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1월27일~6월30일)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천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50원이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면서 추가로 150원을 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초 시는 지난해 8월에 300원 인상된 서울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교감을 거쳐 종합적인 검토 끝에 서민 물가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후 나머지 150원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현주 기자

어이 젊은 친구! 가스보일러 안전 확인 했어!?

- 배기통 이탈 확인!
- 배기통 찌그러짐 확인!
- CO경보기 설치 확인!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나 보일러 제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총선전 인사 금주 마무리

법률·인사비서관 등 비서실 참모진 교체...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 정비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번 주 초 대통령실의 '마지막 총선 전 인사'를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에 앞서 일부 비서관급 교체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각각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보 인사비서관 후임을 채우는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내정돼 업무 인수인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하순 대통령실 '3실장' 개편 당시 정책실 산하로 옮겨갔던 일부 비서관실도 비서실장 산하로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도 장호진 안보실장 부임 등을 계기로 막바지 조직 정비 중이다.

안보실에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중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하는 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해 주요국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제2부속 비서관 후보군 물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에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 설득 속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일각에서 제2부속실 부활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안'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2부속실 설치에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설치와는 별도로, 김 여사는 정상외교 일정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영장심사 법정 향하는 다방업주 살해 피의자

고양·양주 다방업주 여성 2명 살해 50대 구속

도주이유는 "그냥 무서워서"...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시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고 대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한 이씨는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접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

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행각 직후 이씨는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결국 덩미가 잡혔다.

현재까지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서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 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8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안전모 안쓴 이륜차 단속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

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SAMSUNG

Galaxy S23 FE

FE를 갖는 세상에 없던 구매방식

perFECT 프로그램

지금 kt U+에서 만나보세요

지금 U+에서 만나보세요

perFECT 프로그램

갤럭시와 kt U+의 perFECT 콜리보

최대 금액 NO
종교편 처리 걱정 NO

perFECT 베네핏

갤럭시 스토어
[통화: 152-1111] 상담가이드
CU 디어트 혜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함께 응원합니다

samsung.com

페라리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제는 안 된다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시 재계약 불가...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이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천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자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비편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독감 주사제' 품귀라던데 괜찮을까... "먹는 치료제는 충분"

또 다른 먹는 형태의 발록사비르 제제, 흡입하는 형태의 자나미비르 제제도 독감 환자에 쓰는 항바이러스제다.

이 중에서도 최근 인기가 높아진 건 수액처럼 주사제로 맞을 수 있는 페라미플루다.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다섯잔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와 달리, 1회 투여하는 방식이어서 선호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다.

투약의 편의는 개선됐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페라미플루 처방 시에는 환자 본인이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페라미플루를 비타민 수액 등과 함께 처방하면서 15만원 안팎의 비용을 청구한다.

반면 타미플루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므로 약제비만 따져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이 안 된다.

더욱이 타미플루는 특허가 만료돼 성분이 같은 복제약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타미플루 복제약만 180여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캡슐뿐만 아니라 액체인 현탁액 형태도 있다.

이처럼 독감 환자에 쓸 수 있는 먹는 치료제가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더 비싸고 수급도 불안정한 주사제 처방이 우선되는 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꼬집는다.

이준석 “KBS·EBS 수신료 폐지...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尹정부 방송장악 질문에 “전문성 없는 사장 선임, 다른 의도 있다 해석될 수밖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의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에 전문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이유로 들어 “공영방송사는 역할을 지켜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나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 선임이 그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이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내일 양향자 한국외대 대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아주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는 그 이후 시점으로 미루려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탈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김용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연중 서로 평가를 항상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신당 합류 의사는) 이따 (김 의원이) 오면 물어보라”고 했다. / 최규현 기자



김대중 기념식서 축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야권통합” 당부에 민주당 계파 간 ‘아전인수’ 해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유언이라며 야권 통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계파별 아전인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진명(진이재명) 주류는 비주류 일각의 탈당·창당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DJ가 말한 통합은 그게 아니었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과거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당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정신은 야권 통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야권 분열은 김대중 정신과 민주당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 강효성 기자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은 ‘단결해서 총선 승리, 정권 교체’라는 요지이다. 오늘의 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내는 말씀이었다”며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를 예들려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단결에 더 강하게 노력해야 마땅하고,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남지사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되고 당 대표까지 지낸 이 전 대표도 (당에) 돌아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를 비롯해 탈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인사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탈당과 함께 ‘이낙연 신당’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DJ가 야권 통합을 당부했을) 당시는 ‘사당화’가 없을 때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 강효성 기자

‘나꼼수’ 정봉주, 비명 박용진 지역구 출마 “당 정체성 세울것”

정봉주(64)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8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진명(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도한 검찰 독재와 맞서 이 쪽주를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며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을 잡겠다. 이를 위해 강북구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강북을 지역구 현역은 비명(비이재명)계인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너무 많다”며 “잠시 쉬어도 괜찮

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월간지 기자 출신인 정 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갑에 당선됐다가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여중 김용민 주진우 씨와 함께 콧개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며 진영 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 제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복권됐다. 성 추문 의혹에 휩싸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 양희진 기자

5선 이상민, 與 입당...“민주당, 이재명 방패·사설정당돼”

“국민의힘 원내 1당 돼야...尹정부, 더 나은 조건에서 역할 하길”



‘이상민 의원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댔다.

이 의원은 “효랑이 잡으려 효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

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선행,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가 되니 국정이 너무 출렁이고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일상화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그냥 방패 정당, 이재명 사설 정당으로 방패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꼭 원내 1당이 돼서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일 때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추진해 온 이 의원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갖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은 전적으로 맞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보인가, 마저 진보 정당인 것처럼 그런 법안이나 목소리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별금지법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민주당은 다수이면서 왜 통과를 못 시키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효랑이 잡으려 효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

권익위 “공수처장과 차장 문자 교환, 부패행위 등 해당”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과 관련, 이런 행위가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친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 오늘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문자 내용의 구체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은 장소와 시간 등에 비추어 피신고자들의 해명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립정책 질의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해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아울러 “이번 조사는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의 법 집행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차장은 자신들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하게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최성환 기자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육사의시, 교목 중에서〉

세상에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어느 시인과 그 뜻을 함께했던 어느 기업가처럼요 국안을 지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려갑니다



KYOBO 교보생명

대형사고 잇단 무죄에 이태원참사 '수사심의위' 택한 검찰총장

수심위 권고 따라 기소 여부 결정 전망...이태원 유족 "면죄부 우려"



합동분향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 데는 인명피해가 컸던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물론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김 청장과 최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유사하게 다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줄지어 선고하면서 신중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참사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동의했다.

3명이 숨진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도 비슷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 등 4명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작년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개월간 대대적 수사를 벌였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7명 중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큰 틀의 결정을 내리는 지휘부에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최근의 판결 추세인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정부 기관의 잘못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의 책임을 장관 한 사람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경찰 서열 2위로 평가받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무죄가 확정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김 청장과 최 서장까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이른바 '뒷선'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돼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고심 끝에 이 총장이 내린 결정이 수심위를 소집해 외부 위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

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측이 모두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수심위의 권고는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이 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심위 권고를 따르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검찰 수사의 총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에게 어려운 결정을 맡겨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검찰이 수심위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기소 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수심위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상단'인 셈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재수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송원기 기자

아파트서 30m 움직인 차량...항소심서 음주운전 무죄→유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판결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관이 출동해 운전자인 50대 A씨 음주 여부를 측정했더니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나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고,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대리기사가 차를 몰아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고 떠

난 후 A씨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로부터 40분가량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점, 이후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는데 A씨가 운전대 방향으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이 폐쇄회로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A씨는 차량이 후진해 인도에 걸린 상태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쉽게 말해, A씨가 운전석에 있다가 의도치 않게 변속기 레버를 후진 쪽으로 당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에어컨을 조작하려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울산지법 형사항소)는 그러나 해당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벌금을 몰아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고 떠



불법 도박장 운영한 홀덤편

합법 가장한 '홀덤편 불법도박' 집중단속 5개월간 1천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홀덤편(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에 총 1천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8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금 약 6억5천만원을 몰수·추징했다.

집중단속 기간 검거 인원은 미운영 기간(작년 1~7월·226명)과 비교해 4배 넘게 늘었다.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규모도 16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홀덤편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한다.

그러나 해당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우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받는다. 도박장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에 대해선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갖췄다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단체구성죄를 저지른 주범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 최재영 기자

평창서 스키장 곤돌라 멈춤 사고 이용객 64명 30분 넘게 갇혀



7일 강원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곤돌라가 멈춰서는 사고가 나 이용객 64명이 곤돌라 캐빈에 30분 넘게 갇혀있다가 무사히 빠져나왔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휘닉스파크 스키장 곤돌라가 30분째 멈춰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고는 정상부 탑승장에서 곤돌라 캐빈 1대에서 밀림 현상이 발생, 곤돌라 캐빈 간 간격이 어긋나 캐빈 전체가 멈춰서면서 이용객들이 캐빈에 꼼짝없이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키장 측이 문제의 캐빈을 떼어낸 뒤 오전 10시 53분께 작동을 재개하면서 64명 모두 정상부 탑승장에서 내렸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스키장 측은 곤돌라 운영에 쓰이는 벨트의 장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손주현 기자

SAMSUNG

**함께라서
용기나는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새롭게 꿈꾸고
힘차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을
삼성이 응원합니다

미·EU 외교수장 찾아가도 중동 포화 계속...이란 “전면전 직면”

블링컨·보렐 ‘확전 막자’ 연쇄 회동...이스라엘은 “전투 계속” 고수

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이 각각 중동 지역을 찾아 확전 자체를 호소했지만, 가자지구 주변으로 번진 군사 긴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국경에서 맞불 공격을 주고받았고, 가자지구 남부에선 이스라엘 폭격으로 병원이 무너졌다. 이란은 ‘전면전’을 엄포하며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 북부 메론 공군기지에 미 사일 6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측은 지난 2일 하마스 정적국 부국장 살레흐 알아우리 등 암살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메론 기지를 향해 약 4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확인했다.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의 하마스 사무실을 공습으로 알아우리 등이 사망한 지 나흘 만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전쟁 개시 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이긴 했지만 베이루트를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측은 보복을 예고해왔다.

헤즈볼라 발표 후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자마 이슬라미야도 가자 전쟁 후 세 번째 작전으로 이스라엘 북부 키르야트 시모나에서 로켓 두발을 발사했다고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그리스 방문을 마치고 요르단으로 출발하기 전 언론과 인터뷰 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에 책임있는 테러조직을 드론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또 레바논 남부에 있는 군사 기지와 ‘테러리스트 인프라’를 포함, 헤즈볼라의 여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대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시간 미국과 EU의 외교 수장은 각각 중동에 도착해 연쇄 회동을 갖고 확전 방지를 강조했다.

이날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확전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진짜 걱정 중 하나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국경”이라며 “더

이상의 긴장 고조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바논을 방문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레바논이 분쟁에 끌려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에도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역대 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말했다.

보렐 대표는 “외교 채널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전쟁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란은 ‘전면전’을 경고하며 엄포를 이어갔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날 반다르 압바스에서 열린 해군 함정 공개행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적과 전면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라미 사령관은 “우리는 국익이 확대되는 곳 어디서든 우리의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며 “적군은 이 지역에서 멀리 떨

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적’이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멘 친이란 반군 후퇴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란은 지난 1일 구축함 알보르즈호를 예멘 인근 바브 알만데브 해협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후퇴 반군이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이 다국적 해상 안보 작전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이스라엘은 전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가자 북부에서 하마스 해체를 완료했으며, 이제는 가자 중부와 남부의 하마스 해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는 올해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하마스 제거, 인질 전원 송환,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제거라는 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전쟁을 멈추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비명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24시간 동안 최소 122명이 사망하고 256명이 부상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이날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는 2만2천722명에 이른다. 특히 남부 칸 유니스에서는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운영 중인 알아말 병원에 닷새째 포격이 이어졌다. 추가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5일까지 생후 5일 된 아기를 포함해 피란민 7명이 숨졌다. / 홍명섭 기자

대만 선거서 2030 지지받는 제3후보 키워져...“파괴력 주목”



대만 민중당 커윈저 총통 후보

홍콩매체들 “정치 양극화·현실에 불만 대만 젊은층, 커윈저에 기대”

오는 13일 열리는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제3 후보인 민중당의 커윈저(64)가 현실에 불만을 품은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7일 “대만 정치가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친중 제1 야당 국민당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가 힘의 균형을 유지할 제3당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에서 정치인이 된 제2 야당 민중당의 커윈저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는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에 뒤지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확실한 선두주자라고 소개했다.

HKFP는 커윈저가 60대에도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가볍고 유머러스한 어투로 낮은 임금, 높은 집세와 씨름하는 대만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10만명으로 다른 두 후보보다 훨씬 많고, 그가 다른 후보는 계정조차 개설하지 않은 틱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KFP는 “갈수록 공격적인 중국과의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의 운명에 대한 무력감 속에서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심지어 혐오감까지 조성되는 것도 커윈저의 부상을 이끄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커윈저는 그간 “청색과 녹색을 초월하고 이념 대신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색으로 대표되는 국민당이 중국에 너무 가까워졌고, 녹색으로 대표되는 민진당은 너무 도발적이라며 자신이 대만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 김희성 기자

인 태양관측 위성, 4개월 비행해 목표지점 도달...“아시아 최초”

모디 총리 “또 하나의 이정표 세웠다”

인도가 지난해 발사한 태양관측용 인공위성이 4개월여간의 비행 끝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의 첫 태양관측용 인공위성인 ‘아디티아 L1’(Aditya L1)은 작년 9월 2일 발사됐다. 이 인공위성이 지구로부터 150만km 떨어진 라그랑주1지점을 향해 날아가 6일 도착했다고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밝혔다.

라그랑주 1지점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 효과가 상쇄된 곳이다.

아디티아 L1은 앞으로 5년간 라그랑주 1지점에 머문 채 태양 주변 해일로 궤도를 돌며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등 태양 대기 관측한다. 코로나 가열은 태양 상층부 대기인 코로나가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열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디티아 L1 발사는 인도가 지난해 8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달 남극에 세계 최초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지 10



2023년 9월 2일 발사되는 인도 태양관측용 위성 ‘아디티아 L1’

일 만에 이뤄졌다. 인도가 인공위성을 태양 주변 궤도에 안착시킨 것은 아시아 국가로서 처음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궤거’에 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인도가 또 하나의 (우주 탐사 관련)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이는 가장 복잡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증거”라고 자평했다. / 강민혁 기자

트럼프 기세에 불안한 오바마, 바이든에 “선거팀 강화하라”

바이든 선거팀에 전략 조언하며 선거자금 모금도 적극 지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불안한 나머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팀 강화를 권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대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할 때 일부 핵심 참모를 백악관이 아닌 시카고의 선거캠프에 상주시킨 게 승리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백악관에 있으면서 선거캠프의 주요 결



바이든 미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정에 관여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WP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백악관에서 100마일(약 160km) 이상 떨어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요한 결정 전 백악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선거 캠프가 빠르게 변화하는 선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 자신의 선거를 담당했던 참모들의 조언을 구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그는 바이든 참모들에게는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 일찌감치 승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더 직접적으로 자기 생각을 밝혔다. 그는 선거팀이 백악관을 거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거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서 핵심 참모를 윌밍턴에 두거나 선거팀에서 누군가를 발탁하라고 조언했다. / 김유정 기자

Daishin 증권

전문가 3인의 3색 투자 노하우

투자의 정도

플타기 GOAT

단타, 장타 레전드

물리지 않는 남자

김풍이 선택한

국내주식 수수료

완전 0%

0% 1개월간 적용
이후 평생우대(수수료 0.0036396%)

이대호가 선택한

미국주식 수수료

살 때 0%

(매도 시에는 SEC Fee 0.0008%만)
(0% 2개월간 적용, 이후 10개월 0.07%)

강형욱이 선택한

신용거래 이자율

0%

(1~7일간, 이후 최대 9.5%)

고객상담센터 1588-4488

*대출금리(신용이자율)은 연0%~7%동안 적용, 이후에는 기간에 따른 이자율 적용(-9.5%~9.5% *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우대는 이벤트 신청자에 한하며, 신규/미거래 고객 대상 (-2023.12.29)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 참고 * 국내주식 수수료 0%는 1개월간 적용, 이후 평생우대 (유권비용 무료) * 미국주식 수수료 0%는 2개월간 적용, 이후 10개월 0.07% (SEC Fee 별도) * 투자(계약) 전 설명서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용 아님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크레온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0.0088% *월 15,000원~0.015%, 홈페이지 참고 *크레온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0.2%~0.3% 홈페이지 참고 *미국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 시 0.0008% 거래세(SEC Fee) 부과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 시 개인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 *특정 담보비를 미달 시 담보증권 인의지분 유류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226호 (2023.08.30-2024.08.29)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EV9 에어/어스 2WD 19인치 7인승 : 복합 4.2km/kWh (도심 4.7km/kWh, 고속 3.6km/kWh) | 공차중량 2,425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01km (도심 559km, 고속 429km) ◆ EV9 에어/어스 2WD 19인치 6인승 : 복합 4.2km/kWh (도심 4.7km/kWh, 고속 3.6km/kWh) | 공차중량 2,405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501km (도심 559km, 고속 429km) ◆ EV9 에어/어스 2WD 20인치 7인승 : 복합 4.1km/kWh (도심 4.6km/kWh, 고속 3.5km/kWh) | 공차중량 2,430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80km (도심 538km, 고속 408km) ◆ EV9 에어/어스 2WD 20인치 6인승 : 복합 4.1km/kWh (도심 4.6km/kWh, 고속 3.5km/kWh) | 공차중량 2,410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80km (도심 538km, 고속 408km) ◆ EV9 에어/어스 4WD 19인치 7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2km/kWh, 고속 3.3km/kWh) | 공차중량 2,550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5km (도심 490km, 고속 389km) ◆ EV9 에어/어스 4WD 19인치 6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2km/kWh, 고속 3.3km/kWh) | 공차중량 2,570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5km (도심 490km, 고속 389km) ◆ EV9 에어/어스 4WD 21인치 7인승 : 복합 3.9km/kWh (도심 4.3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585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54km (도심 502km, 고속 395km) ◆ EV9 GT-line 4WD 21인치 7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1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610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3km (도심 483km, 고속 394km) ◆ EV9 GT-line 4WD 21인치 6인승 : 복합 3.8km/kWh (도심 4.1km/kWh, 고속 3.4km/kWh) | 공차중량 2,615kg | 충전지 정격전압 552V / 180.9Ah | 1회 충전 복합 주행 거리 443km (도심 483km, 고속 394km) ※ 위 연비(주행거리)는 표준모드에 의한 수치로서 운전방법, 차량속도, 탑승인원, 적재중량, 차량설정, 정비상태, 외기 온도, 기상 조건 및 도로 상태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온도 하락 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주행거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도진 한탕주의'...태영건설 회사채·주식 거래량 급증

워크아웃설 확산 이후 거래량↑...“채무조정 때 큰 손실 가능성” 경고



태영건설 채권자 설명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태영건설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하는 '살얼음판 베팅'에 나서고 있다.

태영건설 회사채 가격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크게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지만, 현재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데다 설사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무조정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 4거래일간 태영건설 상장 회사채(채권명 '태영건설 68')의 액면가 기준 거래량은 일평균 약 7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에는 총 11억5천만원어치가 거래되기도 했다. 이 회사채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다.

태영건설68의 지난해 7~11월 사이 일평균 거래량은 약 1천900만원에 그쳤지

만, 태영건설 워크아웃 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중순 이후 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며 12월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2억8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인 지난달 28일 거래량은 39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태영건설68은 올해 7월 19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장 회사채로 애초 3개월마다 연이율 2.59%의 이자가 지급되기로 약속된 채권이다.

채권 1장당 액면가는 1만원이지만 워크아웃 신청 이후 장내에서 6천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현재 개인들의 태영건설 회사채 투자는 약속된 이자까지는 못 받더라도 싼값에 채권을 사놓고 보유하면 향후 정상화된 태영건설이 원금을 상환할 시 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근거한다.

그러나 증권가는 이런 단순 차익만을 노리고 태영건설 회사채에 투자하기에는

향후 채무조정 과정상 불확실성이 커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우려한다.

우선 워크아웃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태영건설 측이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자구안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과 태영그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은 커진다.

고비를 넘겨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통상 워크아웃 과정에서 개인들은 비협약채권자로 구분돼 전액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들에게도 고통 분담이 요구될 수 있

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보통 무상감자를 거쳐 출자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일부를 주식 등으로 받게 된다.

회사채 투자자로서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주주가 되는 셈이다.

현재 태영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국내 신용평가사 3곳으로부터 워크아웃 신청 당일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일제히 강등됐다.

CCC는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의문시될 때 신평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이다.

/ 송진영 기자

작년 라면 수출액 9억5천만달러로 '사상 최대'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라면의 수출액이 10억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9억5천200만달러(약 1조2천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0월까지 7억8천500만달러로, 2022년에 기록한 직전 연간 최대치인 7억6천5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연간 라면 수출액은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 수출액은 2015년 2억달러대에서 2018년 4억달러대로 늘어나고 2020년 6억달러대, 2022년 7억달러대를 각각 기록했다.

농심 등 일부 라면 업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K라면의 세계 시장 규모는 수출액보다 더 크다.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주요 이유로는 K-콘텐츠의 인기가 꼽힌다.

/ 박소희 기자



몽골 GS25 매장의 현지인 고객

GS25 “베트남·몽골 안착...6년 만에 점포 수 20배·매출 35배”

편의점 GS25는 해외 진출 6년 만에 점포 수를 20배로 키우며 해외 시장에 안착했다고 7일 밝혔다.

GS25는 2018년 1월 베트남 시장과 2021년 5월 몽골 시장에 발을 내딛었다.

점포 수를 보면 베트남은 2018년 26점에서 이달 현재 245점으로, 몽골은 2021년 34점에서 이달 273점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달 현재 해외 점포 수는 518점으로, 해외 진출 첫해인 2018년과 비교하면 20배로 늘었다.

베트남에서는 남부 베트남 기준으로 6년 만에 점포 수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몽골에서도 3년 만에 시장점유율 40%를 넘어서며 공고한 지위를 점했다.

외연 확장에 걸맞게 영업 실적도 준수하다. 지난해 기준 두 나라에서 거둔 매출은 2018년 대비 약 34.8배로 성장했다.

GS25는 성공적인 해외 시장 안착의 비결로 떡볶이, 치킨 등 K-푸드를 융합한 현지 식(食)문화 전략과 식당과 카페, 커피 등 역할을 겸하는 편의점 인프라를 꼽았다.

다. GS25는 직영점 외에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모집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점포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GS25 매장 앞세 모여든 현지 고객들 [GS25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트남의 GS25 매장 앞세 모여든 현지 고객들 [GS25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트남에서는 2021년 12월, 몽골에서는 지난해 12월 각각 첫 가맹점을 개점하며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글로벌 1천호점에 이어 2027년에 1천500점을 달성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정재형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장(전무)은 “지극ंत 쌓아온 해외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목적 인프라 기능 강화, 가맹점 확대에 속도를 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형진 기자

편의점서 정육도 판매...CU, 소포장 '큐브 스테이크' 2종 출시



편의점 CU는 오는 11일 미국산 부채살 큐브 스테이크와 척아이롤 큐브 스테이크 등 2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입 크기로 썰린 큐브 형태의 시즈닝 스테이크 상품으로,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잘 어울린다고 CU는 설명했다. 180g 소용량 포장으로 1인 가구에 알맞은 상품이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의점이 근거리 장보기 채널로 주목받으면서 정육 제품도 부쩍 잘 팔리는 추세다.

CU에서 판매하는 정육 품목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2021

년 24.1%, 2022년 36.9%, 2023년 26.4% 등으로 지속해 두 자리 수를 달성하고 있다.

CU는 지난해 3월 삼겹살, 목살 등 하이포크 한돈 정육을 출시해 현재까지 약 10만개의 판매고를 올렸다.

같은 달 출시된 국내산 한우 페퍼 시즈닝 스테이크, 갈릭 시즈닝 스테이크, 큐브 스테이크 등 한우 상품도 누적 판매량 5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호주산 부채살 스테이크, 척아이롤 스테이크도 출시 약 한 달 만에 2만개가 팔렸다.

CU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수요가 많은 구이용 상품은 물론 국거리, 불고기 등 양념육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냉동육 등으로 정육 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CU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늘며 편의점에서 소용량·소포장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이를 반영해 편의점 장보기 관련 상품 구색을 확대해 근거리 쇼핑 플랫폼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종민 기자

“국민 10명중 4~5명 자율주행차 구매의향...젊을수록 높아”

국민 절반가량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설문조사 플랫폼 엠베인을 활용해 전국 14~7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1%는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26.2%,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지 않은 ‘보통’은 28.7%였다.

구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5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47.5%), 50대(47.2%), 40대(45.6%), 30대(44%), 60대(42.3%) 순이었다. 70대는 34.4%에 불과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사와 관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버스

련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있다’고 답했다. ‘낮다’는 22.2%, ‘보통’은 30.3%였다. 역시 10대에서 6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70대에서 39.1%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52.5%, 30대는 40.5%, 40대는 41.9%, 50대는 46.3%였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레벨 2’ 기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25.9%에 그쳤다. 레벨 2는 ‘부분 운전

자동화’ 기술로, 운전자가 운전대나 페달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 운전 환경을 주시해야 하는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다.

“자율주행차”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단어)를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은 23%는 ‘편안·편리’를 꼽았다. 다음으로 많은 답변(13%)은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테슬라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었다.

연구원은 “아직 자율주행 ‘레벨 3’(운전자가 시스템의 요청이 있으면 개입하는 단계) 이상의 기술 단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미국처럼 자율주행차 안전·수용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순호 기자



안전하기로, 건강하기로, 사랑하기로

약속된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면 약속된 행복이 찾아오니까

약속하길 잘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일산 오픈”

신한 연금라운지가 열린다

인생 2막이 더 즐거워진다



은퇴 자산뿐 아니라
건강한 은퇴 라이프까지
신한은행 연금라운지의
고객 맞춤형 1:1 연금 솔루션으로
걱정 없는 인생 2막을 즐기세요

[신한 연금라운지]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신한 연금라운지 일산

신한SOL 연금라운지 * 모바일 플랫폼

- ▶ 통합 연금 컨설팅: 연금통합관리 및 은퇴자산 설계
- ▶ 현금흐름 진단: 매월 입·출금 분석을 통한 은퇴 후 소득·지출 진단
- ▶ 전문가 상담: 세무, 부동산 등 전문가 연계 상담
- ▶ 평생소득 아카데미: 은퇴 전·후 필수 금융상식 및 주택연금 심화상담

- ▶ 신한은행 연금 자산 통합 관리 및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 ▶ 연금고객님을 위한 필수 금융정보 “52주 리더”
- ▶ 연금고객님 전용 상품 / 서비스 안내
- ▶ 간편한 세금 조회 서비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3층 02-6224-5499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4층 031-812-3655

신한 SOL 앱

* 위 이미지는 일러스트로 표현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3-15835-1(2023.12.15~2024.12.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명동 '버스대란'에...서울시, 광역버스 노선·정차 위치 조정



5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빚어진 퇴근길 '버스 대란'과 관련, 서울시가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조정해 혼잡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해 1월 말까지 광역버스 노선과 정차 위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그간 협의를 진행해 온 수원, 용인 등 6개 노선의 경우 시는 8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시민 안내 및 운수 종사자 교육 등 2주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 넷째 주까지 노선 조정을 완료하

로 했다. 세부적으로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의 승하차 위치가 현재 명동입구 정류소에서 광교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바뀐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명동입구 전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옮긴다.

또 명동입구 정류소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중 5개 안팎의 노선을 을지로와 종로 방면에서 즉시 회차하거나 명동 정류소에 무정차하도록 조정해 도심 내부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수원·용인 등 6개 노선, 이달 말까지 승하차 위치 변경 다른 노선도 추가 협의...오세훈 시장 "불편 드려 죄송"

해당 노선들은 서울역을 거쳐 명동까지 진입해 도심 차량 흐름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는 1월 둘째 주까지 해당 노선의 변경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월 말까지 대광위에 직권 노선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선 조정이 이뤄지면 명동입구 정류소 이용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천500명에서 5천800명까지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명동 일대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이곳 정류소 인도에 노선번호 표시판을 설치해 승객들이 줄을 서도록 했다. 명동입구에 정차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29개로 급증하다보니 버스 여러대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승하차 승객들이 서로 뒤엉켜 붐비고 안전사고 우려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노선번호 표시판들을 말뚝처럼 인도변에 세워 해당 표지

판 앞에 줄을 서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승하차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오히려 정체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되면서 혼잡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깊은 고려 없이 급조한 '탁상행정'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불만이 쇄도했고, 결국 시는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표지판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3명의 교통계도요원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오 시장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V'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해야 했는데, 신중치 못하게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노정규 기자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한 '부기'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지상파 드라마 출연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최근 지상파 인기 드라마에 간접광고(PPD)로 출연했다.

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부기가 지난 5일 MBC의 금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에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번엔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기는 체크무늬 카디건을 입고 등장해 주연 배우인 이세영, 배인혁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남녀 주인공이 부산시민공원에 조성된 '부기상회'에서 친구에게 줄 선물로 '부기 굿즈'를 고르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들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구매하는 아이টে็ม으로 소문난 '부기 키링'을 선물로 골랐다.

시에 따르면 부기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운상사, 모다라, 쿠도, 콘텐츠코어, 페이트 스튜디오 등 5개사는 해당 굿즈 제공과 전시 등 촬영 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김재학 시 대변인은 "부기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공 캐릭터로서 인정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7월 자치단체 최초로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료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바 있다.

시는 이번 PPL 드라마 외에도 부기와 부기 굿즈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로 풀어낸 숏드라마와 부산 곳곳을 감각적인 비주얼로 소개하는 모션그래픽을 제작해 '부기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 오문섭 기자

김진태 지사 'CES 2024' 참석, 강원 미래산업 시장 확대 나서 의료·바이오 헬스 기술 홍보...도내 기업 세계 시장 진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핵심 미래 산업의 성장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지역 미래 비전과 정책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자 오는 8일~13일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먼저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G프린티어 프로젝트 추진단'은 CES 2024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도내



김진태 강원도지사

의료기기·바이오 헬스 등의 기술을 홍보, 수출 확대와 글로벌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삼성·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대기

업 부스를 방문해 차세대 혁신 기술을 배우고 도의 비전과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지역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어 추진단은 LA로 자리를 옮겨 미주 도민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앞으로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도내 기업의 미국 서부시장 진출에 도민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협력 기반을 다져 줄 업무협약을 2건 체결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추진단의 이번 미국 방문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도정의 새해 첫걸음"이라며 "미래산업 시장 동향을 꼼꼼히 살펴 도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 정책이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민경 기자

매월 8일은 세종시민 '자전거 타는 날' 이용 장려 캠페인



세종시는 매월 8일 '자전거 타는 날' 지정을 기념해 이달부터 자전거 이용 장려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 자전거 타는 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거쳐 지정됐다.

시는 매월 8일 공영자전거 '어울림'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 3회 무료 이용이 가능한 웰컴 쿠폰을 주고, 어울림 이용자 중 300명을 추첨해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전거 타는 날 당일 친구에게 어울림 이용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 달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연간 매월 8일 어울림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에게 1개월 이용권을 주고, 어울림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3명에게는 연말에 1년 이용권과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자전거 타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과 시티앱 등을 통해 이런 혜택을 널리 알리는 한편 어울림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와 대여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는 지형이 평탄하고 하천도 많아 자전거 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며 "세종시가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 권현준 기자

대전광역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안내문

▶ 지원대상: 군복의 의무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아예의 공백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단, 군인연금수급권자 제외)

▶ 지원기간: 2024. 1. 1. 이후 전역자

▶ 지원액: 신청일 기준 18세~39세 이하의 청년
 - 1인: 신청일 기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 2인: 2024. 1. 1. 이후 전역자
 - 3인: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미창업자)
 - 4인: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미창업자) 중 1인(한정) 포함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시민복지국(42-270-0893)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처: 대전광역시 시민복지국(42-270-0893)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서
 2. 청년부상제대군인/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명 본인
 3.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 확인서
 4. 공통서류: ① 신분증 ② 병역증명서 ③ 고소보험 자격 이해내서
 ④ 사업등록/사업장명 ⑤ 직역/구직활동 인정서류 ⑥ 본인명예 통장잔액

대전시, 부상 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전국 최초

대전시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과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역한 뒤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8~39세 청년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창업자나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보존정책 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시는 군 복무를 통한 희생의 보상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 최경준 기자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땡~땡!

마음을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정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나 기업의 주식을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타래로 제공해주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구매할 때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을 타래로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농협)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협점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인 별개)
--	---	--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남궁돈 만두명장

since.1988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목2동 '남궁돈 만두명장' 남궁돈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인천시, '北 이틀 연속 서해 포사격'에 주민보호 대책회의

서울시, 연천에 수도권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2027년 개관



인천시는 지난 5일과 6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이틀 연속 포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7일 주민 보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 대피와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오진군·연평면과 협력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

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6일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이틀간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유 시장은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경보체계를 갖춰 주민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광주 광산구 상습침수지역 빗물저장소 공사 차질 장기화 구청 '단순 실수'에 설계변경 등 최소 1년 이상 지연

광주 광산구 상습 침수지역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저장소를 설치하는 공사가 설계 오류와 감독 미비 탓에 기약 없이 멈췄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가 공정률 52%에서 지난해 7월 26일부터 중단됐다.

우수저류시설은 하수시설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올 경우 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재해 예방 시설이다.

우산동 시설은 9천660t 용량으로 설계됐는데, 광산구는 공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지난해 여름 작업을 중단하고 설계 변경에 착수했다.

공사 현장이 기차길과 맞닿아 있는데도 기존 설계는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현장

이로인해 철길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 당국과 재협, 추가적인 계약심사 등이 필요해 공사가 중단됐고 설계변경도 계획 검토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 예상 시점을 올해 말로 수정했다.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애초 지난해 말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2월

시작됐다.

국비 73억원 시비·구비 각 36억5천만원 등 총 14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설계 변경과 일정 지연으로 사업비도 조정될 것으로 광산구는 내다봤다.

작업 방식을 잘못 채택하면서 빗어진 설계오류에 대해 광산구는 사전 점검이나 초기 공정 단계에서 잡아낼 수 있었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공사 감리단이나 총괄 기관인 광산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광산구는 공사 완료 이후 총사업비 재산출 등을 거쳐 설계업체와 감리단에 각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광산구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고자 최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 지연에 따라 잠차철 빈번한 침수 피해를 겪는 광산구 우산동 일대는 올해도 다른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

/ 안종현 기자



반려동물 추모관 함께 조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 300만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경기 연천군과 손잡고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덕현 연천군수의 면담에서 연천군 측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22.5%)로 전체 반려동물 수는 114만7천 마리에 달한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내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곳(경기 여주시·오산시)에 불과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만큼 서울 인근에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연천군 군남면 일대의 임진강 유원지 부지 약 12만㎡에 수도권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카라반·글램핑·오토 캠핑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과 반려견 동반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바람직한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정착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테마파크 인근 약 5천㎡ 크기의 부지에 '반려동물 추모관'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에서는 한해 13만 마리 이상(2020년 기준)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한다.

추모관에 화장장·건조장·봉안당 등의 시설을 갖춰 시민이 서울에서 멀리 않은 곳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수 있게끔 돕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시는 테마파크 조성·운영을, 연천군은 기반 시설 공사·임진강 하천구역 정비·공청회 등을 맡는다.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7년 개관이 목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고 싶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공기 맑고 드넓은 연천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시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뿐 아니라 서울시-연천군의 협력이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거대한다"고 말했다.

/ 임지현 기자

대전·충남 대학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 작년보다 상승

대전·충남 4년제 대학들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7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는 정시 '가군'과 '나군'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1천213명 모집에 6천19명이 지원해 평균 4.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정시 4.66대 1보다 다소 오른 것이다. 가군 일반전형 가운데는 의예과 15명 모집에 147명이 지원해 9.8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수의예과 8.33대 1,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7.67대 1 등이다. 나군 일반전형 가운데는 약학과가 6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해 11.17대 1로 가장 높았다.

한남대는 총 526명(정원 내) 모집에 2천642명이 지원해 5.0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96대 1보다 1.0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일반전형의 신소재공학과 9.0대 1, 경제학과 9.0대 1, AI융합학과 8.7대 1, 경영정보학과 8.38대 1, 사학과 8.25대 1 등이다.

한남대는 정원 내 최초합격자 전원에게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의 30%를 감면해주는 한남 챌린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건양대는 정원 내 기준 396명 모집에 1천254명이 지원해 3.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2.61대 1보다 올랐다. 대전대는 정원 내 505명 모집에 1천773명이 지원해 평균 3.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전형 한의예과 13.43대 1,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0.00대 1, 간호학과 9.80대 1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 한지영 기자

제주도, 8일부터 충남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제주도는 8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계란·고기·부산물 등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충남 천안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오며 따라 이런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다른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다만 전북지

역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AI 발생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거치는 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전남·충남의 가금산물과 전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을 금지한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전남·충남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AI 차단을 위해 추사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야생조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 황순길 기자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SK hynix

SAMSUNG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깨끗한 Air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

클린스만호, 아시안컵 앞두고 이라크에 1-0 승리...6연승 행진

전반 40분 이재성 선제 결승골 폭발...후반 막판 이강인 '경고누적 퇴장'

=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아시안컵 최종 모의고사에서 이라크에 승리하며 A매치 6연승과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전반전 터진 이재성(마인츠)의 선제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9월 12일 치른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매 경기 승전고를 울리던 클린스만호는 이날도 승리하며 6연승을 내달렸다. 이 6경기에서 클린스만호는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총 20골을 퍼부었다.

지난해 9월 7일 0-0 무승부로 마친 웨일스와 평가전까지 더하면 무실점 행진은 총 7경기째 이어졌다. 이라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63위로 23위인 한국보다 40계단 낮다. 하지만 아시아 나라 중



랭킹 10위권 수준을 유지해왔고, 2007년 동남아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전력도 있는 저력의 팀이다.

한국은 이라크와 통산 전적에서 9승 12무 2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아시안컵을 코앞에 두고 중동 팀인 이라크에 대승을 거두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한국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E조 1위, 이라크가 D조 2위를 하면 두 팀은 16강전에서 '리턴 매치'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유럽파 핵심 자원을 대거 벤치에 앉히고 교체 자

원으로 분류되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 명단을 채워 넣었다.

오현규(셀틱)가 최전방을 맡고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이재성이 좌우 공격수로 나섰다. 황인범(즈베즈다)과 홍현석(헨트)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에 나섰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박용우(알아인)가 배치됐다.

후반 41분 이강인이 퇴장당하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강인이 아흐메드 야히아와 경합을 벌이다가 흥분해 충돌했는데, 야히아가 이강인의 안면을 때리는 등 더 거친 행동을 했음에도 주심은 이강인과 야히아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내밀었다.

앞서 옐로카드를 한 장 받은 상태였던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대표팀은 10명이 싸우면서 추가 득점과 실점 없이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다.

/ 최준용 기자



(왼쪽부터) 블루스타 주장 신지현과 핑크스타 주장 박지현

여자농구 올스타 팬투표 1위 박지현

“위성우 감독 도발할 것”

데뷔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핑크스타의 주장이 된 박지현(우리는 행)이 상대 팀 감독으로 만나게 된 위성우(우리은행) 감독을 향해 ‘쇼를 하겠다’며 도발을 예고했다.

‘지현대전’을 이끈다. 두 ‘지현’을 포함한 20명의 선수는 투표 순위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어 즐거운 맞대결을 펼친다.

박지현은 “같은 ‘지현’끼리 맞붙게 됐는데, 박지수(KB) 언니도, 김단비(우리

박지현, 데뷔 5년 만에 첫 올스타 팬투표 1위

팬투표 2위로 블루스타 주장 신지현

박지현은 7일 충남 아산시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핑크스타의 주장을 맡았다.

박지현은 지난달 6~25일 진행된 올스타 팬 투표에서 가장 많은 3만2천639표를 받아 3만1천645표를 받은 2위 신지현(하나원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2018-2019시즌 데뷔 후 꾸준히 올스타에 선정됐으나 1위까지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현은 상금 100만 원도 팀으로 받는다. 경기 전 취재진과 만난 박지현은 ‘위성우 감독 앞에서 쇼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지현은 “감독님이 내게 ‘쇼하지 말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쇼하는 모습으로 도발할 것”이라며 “하프타임을 기대해달라”고 웃었다. 이어 “3쿼터에는 위 감독님과 1대1도 보여줄 것”이라며 “다른 감독님들도 무언가를 준비하신 것 같던데, 유심히 봐달라”고 덧붙였다.

박지현과 신지현은 각각 핑크스타와 블루스타의 주장으로 나서 올스타전

은행) 언니도 우리 팀인 만큼 우리가 이길 거다. 지수 언니를 많이 뛰게 할 예정”이라며 승리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흠인 아산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만큼, 아산 팬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도 내가 타겠다. 욕심 내보겠다”고 공언했다.

신지현은 블루스타의 세리머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신지현은 “베스트 퍼포먼스상은 지난해에 이어 진안(BNK)이 유력하다. 아마 다 ‘짖어 놓을 것’”이라며 “입장 퍼포먼스를 미리 봤는데, 진안이 분위기를 많이 띄울 것 같다”고 웃었다.

이어 “김정은(하나원큐) 언니가 댄스 연습을 버거워하긴 했지만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팬 투표 1위에 올랐던 신지현은 “2위도 높은 순위라서 감사하다. 1위를 해봤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상금이라는 동기부여도 있는 만큼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광도현 기자

MLB닷컴 “배지환, 피츠버그 주전 2루수 후보...열쇠는 공격력”

피츠버그 투수 심준석은 구단 내 유망주 순위 14위로 새해 출발

미국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세 번째 시즌을 앞둔 한국인 내야수 배지환(24)이 2024년 피츠버그 주전 2루수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4일(한국시간) 시즌 전망 기사에서 배지환과 리오버 페게로(23), 닉 곤살레스(24)까지 3명이 주전 2루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지환은 지난 시즌 111경기에서 타율 0.231, 2홈런, 32타점, 54득점, 24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608을 찍었다.

장타력에 장점이 있는 유망주 페게로는 59경기 타율 0.237, 7홈런, 26타점, OPS 0.653을 거뒀고 곤살레스는 35경기 타율 0.209, 2홈런, 13타점, OPS 0.616이었다.

지난해 거둔 성과만 본다면 세 명 가운데



피츠버그 내야수 배지환

특출하게 뛰어난 성적을 낸 선수는 없다.

그나마 배지환이 중견수와 2루수 자리를 오가며 빠른 발을 앞세워 111경기에 출전해 경험은 가장 풍부하다.

MLB닷컴은 “현재로서는 페게로가 주전 2루수 자리에 가장 가깝고, 타격 능력이 출중한 곤살레스 역시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지 않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배지환에 대해서는 “빠른 발이 장점인 배지환은 2루수뿐만 아니라 유격수로도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시즌 개막까지 공격력이 선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열쇠”라고 지적했다.

피츠버그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기량을 키우고 있는 심준석(19)도 피츠버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유망주다.

미국 진출 첫해인 지난해 루키 리그에서 4경기에 출전해 8이닝 동안 삼진 13개를 잡아냈던 그는 부상 때문에 일찍 시즌을 마쳤다.

현재 심준석은 MLB닷컴이 집계한 피츠버그 구단 내 유망주 순위 14위다.

미국에서 고작 4경기만 던진 19세 투수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이승규 기자

피겨 차준환, 종합선수권 8연패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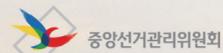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대회 8연패 금자탑을 쌓으며 차기 시즌 태극마크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차준환은 7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9.35점, 예술점수(PCS) 90.08점, 총점 179.43점을 받았다.

이로써 쇼트프로그램 점수 96.51점을 합친 최종 총점 275.94점으로 2위 이시형(241.05점·고려대), 3위 서민규(232.62점·경신중)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차준환은 2017년부터 대회 8연패를 이어갔고, 이번 대회 남자 싱글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4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 노승만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예능 대세’ 된 기안84...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매력

작년 화제성 10위 안에 20번... “데이터가 대상 맞다고 말해”

“방송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기안84는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매력으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를 통해 2023년 최고의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년 말 MBC는 웹툰 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에게 방송연예대상 대상을 수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C의 설명대로 기안84는 지난 한 해 동안 MBC 예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것은 물론, TV와 모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틀어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

7일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편택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안84는 비드라마 영역에서 주간 화제성 순위 1위를 세 차례 차지했다. 그는 대상을 받은 12월 마지막주에도 화제성 1위에 올랐다.

화제성은 기사, 게시글, 동영상 클립의 개수와 분량, 소셜미디어(SNS)에서 언급되는 빈도 등을 종합해 산출된다.



예능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3 방송 화면

시청자들은 기안84가 출연하는 예능의 재미를 그의 꾸밈 없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찾는다.

별명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는 그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기안84가 큰 화제작을 연달아 낸 인기 웹툰 작가이고 치열하게 노력해온 점을 생각하면 ‘태어난 김에 산다’는 말이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표현이다.

그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먹어

나 웃옷을 벗은 채 요리하고, 전등이 고장 나면 방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등 털털하고 꾸밈 없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런 기안84의 장점을 극대화해 재미 요소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바로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이하 ‘태계일주’)다. 제목부터 기안84의 별명을 이용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그의 무계획 외국 여행을 다룬다.

기안84는 이 프로그램에서 먼 여행길에도 작은 백팩 하나에 모든 짐을 챙겨 시작부터 놀라움을 안겼다. 이 프로그램에

서 그는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줬던 꾸밈없는 모습의 ‘심화판’을 선보였다.

페루로 떠난 시즌1에서 기안84는 실외에서 수도꼭지를 발견하자 갑자기 웃옷을 벗고 씻더니 옷을 수건삼아 물기를 닦아냈다. 초대받은 현지인의 집에서 낯선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집주인보다도 먼저 단잠에 빠져 코를 골았다.

‘태계일주’는 기안84의 활약에 힘입어 세 번째 시즌이 방영 중이다. 시즌1이 최고 5.2%, 시즌2가 최고 6.1%, 시즌3이 최고 6.7%로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시청자들은 ‘나 혼자 산다’나 ‘태계일주’ 클립 영상에 ‘가식 없고 따뜻한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는 게 매력’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대중이 ‘리얼함’ 내지 ‘날것’의 재미에 환호하는 트렌드에 기안84가 부합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다른 이들과 달리 기안84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대중이 그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차츰 더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희진 기자



‘외계+인’ 2부

‘외계+인’ 2부 류준열

“인연에 관한 이야기...한 단계 성장한 듯”

오는 10일 개봉하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2부는 시공을 초월한 SF 판타지다. 고려시대 도사와 신선들이 시간의 문을 통해 2022년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 외계인과 전투를 벌인다.

최 감독의 전작 ‘전우치’(2009)의 주인공 전우치가 몇백년의 잠에서 깨어나 오늘날 서울에서 모험하는 걸 연상케 한다.

‘외계+인’ 속 캐릭터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보다 보면 아득하게 떨어진 시공을 이어주는 인연이라고 하는 걸 문득 생각하게 된다. ‘외계+인’에서 고려시대 얼치기 도사 무릎을 연기한 배우 류준열은 이 영화가 인연에 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류준열은 ‘외계+인’ 2부가 “감성적인 영화”라며 “사람의 만남, 인연, 운명 같은 걸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얘기보다는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게 어떤 식으로 다시 돌아올까’에 관한 이야기로 접근한다면 재밌지 않

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시사회에서 영화를 본 류준열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잘 나온 것 같다”며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외계+인’ 2부는 2022년 7월 개봉한 1부의 뒷이야기를 다룬다.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촬영한 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눠 시차를 두고 개봉하는 것이다. 촬영 기간이 한국 영화 사상 최장인 387일에 달한다.

류준열은 ‘외계+인’ 촬영에 들어갈 무렵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긴 촬영 기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골프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는 “인생사가 대체로 그렇지만, (영화와 골프도) 긴 싸움이란 걸 느꼈다”며 “골프는 한순간의 실수로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영화도 실수 하나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촬영 기간이 긴 만큼 배우들의 관계도 돈독해졌다. 특히 류준열은 ‘외계+인’ 2부의 마지막 부분을 찍었던 두 달여의 시간을 회고했다.

/최영민 기자

골든디스크 대상에 음반 세븐틴·음원 뉴진스

그룹 세븐틴과 걸그룹 뉴진스가 ‘38회 골든디스크 어워드 위드 만다리’(with Mandiri)에서 음반과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각각 차지했다.

세븐틴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열 번째 미니음반 ‘FML’로 음반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또한 음반 부문 본상과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추가하고, 유닛(소그룹) 부석순이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받으며 총 4관왕에 올랐다. 멤버 민규는 “멤버끼리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최고의 상을 받은 것 같아 영광스럽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최고의 히트곡 ‘디토’(Ditto)로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해린은 “저희 노래를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매번 무대를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노래를 많이 가지고 나올 테니 지금처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룹 세븐틴

해린은 “오늘 멋있는 선배님들 무대를 보며 재미있게 즐기면서 많이 배웠다”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기뻐했다.

신인상은 그룹 제로베이스원과 히트곡 ‘큐피드’(CUPID)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은 피프티 피프티에게 돌아갔다.

/오현주 기자

BTS 슈가 참여한 싸이 ‘땃땃’ 뮤직비디오 5억뷰 돌파

가수 싸이(PSY)의 ‘땃땃’(That That)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5억회를 돌파했다고 6일 소속사 피네이션이 밝혔다. ‘땃땃’은 지난 2022년 발매된 싸이의 정규 9집 타이틀곡으로, 싸이와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공동 프로듀싱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3천만 회를 돌파했고, 1주일 만에 1억회를 달성했다.

/박정수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아53015 서울,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HYUNDAI

또 하나의 백화점, 현대백화점 APP

현대백화점의 모든 경험을 한 손에!
백화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앱 하나에 담았습니다.

웨이팅

팝업스토어
대기 시간을 아껴줌

예약하기

인기 레스토랑을
원하는 시간에 예약

모바일 간편 결제

할인과 결제를
동시에

혜택과 정보

나의 쇼핑
패턴에 맞춤

새로워진 현대백화점 APP
지금 만나보세요

Google Play | App Store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명세정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성닷컴 | 현대리버트 | 현대&C | 지누스 | 현대렌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이술관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
좋잖아요

지금부터 누구나 증권사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톡으로 똑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 증권